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 활동 보도

2013년 04월 29일  
(월요일)

## 강북신문 4면

### “의원 모두 자정노력 필요하다”

이종순 의원, “주민들 오해사는 일 없도록 해야” 강조

강북구의회 이종순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1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펼쳤다.

이날 이 의원은 “지방의원의 93%가 감시대상인 행정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광역시의회에서 택시요금 인상과 시내 야간경관 조명사업 등에 관련돼 금품수수하다 적발된 경우를 밝히고 “지방의원들의 부패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북구의 경우 행정보건의위원회 소관 44개 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2개 위원회 등 총86개 위원회에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위반’이라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를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청탁의혹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을 위한 활동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사례를 밝히기도 했다. 의원들의 위원회활동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의결기능을 가진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지방의원 참여를 금지하고 있고, 소관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 의원 모두의 자정 노력과 집행부와의 보다 효율적인 협조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강북구가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압력 행사는 물론 집행부 공무원의 청탁 비리 등 어떠한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는 청정 강북이 되기 위해 모두 함께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의원 모두의 자정 노력과 집행부와의 보다 효율적인 협조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강북구가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압력 행사는 물론 집행부 공무원의 청탁 비리 등 어떠한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는 청정 강북이 되기 위해 모두 함께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포스트 4면

### 소속된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은 위반!



강북구의회 이종순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1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상발언을 펼쳤다.

이날 이 의원은 “지방의원의 93%가 감시대상인 행정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의원들의 부패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북구의 경우 행정보건의위원회 소관 44개 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2개 위원회 등 총86개 위원회에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위반’이라는 ‘지

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청탁의혹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사례를 밝히기도 했다.

의원들의 위원회활동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의결기능을 가진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지방의원 참여를 금지하고 있고, 소관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 의원 모두의 자정 노력과 집행부와의 보다 효율적인 협조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강북구가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압력 행사는 물론 집행부 공무원의 청탁 비리 등 어떠한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는 청정 강북이 되기 위해 모두 함께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